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의 발음에 대하여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양 병곤

1. 머릿말

주위에서 영어를 배울 때 어떤 영어 발음을 배워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특히, 영국영어와 미국영어라는 두 가지 다른 발음을 두고 어느 쪽이 앞날에 도움이 될 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의 형성과정과 발음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발음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발음을 익히려면 영국영어를 하는 영국인이나 미국영어를 구사하는 미국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또렷한 발음이 필요하고 귀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발음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인의 발음만 잘 알아들을 수 있거나 영국영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는 절름발이 영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영어를 공부한 세계의 어떤 사람이라도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고 동시에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발음을 익혀야 한다.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토착화된 발음이 상당히 가미된 영어 발음을 알아듣는 훈련도 해야만 국제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텍사스처럼 독특한 남부지역 방언이 있으나 방송에서 사용되는 일반미국어가 중심이 되어 발음되므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영국인과 미국인이 만나도 거의 대다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용어와 발음이 달라서 서로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는 언어로 사용하는 정보가 문맥과 담화적 정보에 의해 생소한 단어라도 쉽게 추정할 수 있을 만큼 잉여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영어발음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표준영어를 구사하고 다양한 영어의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말을 배울 때는 주로 표준어를 배우려고 시도한다. 표준어란 어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중산층의 교육받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는 애매한 정의를 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서울말을 표준어로 지정하고 있지만 특별히 방언보다 발음하기 쉽다든지 아름답게 들린다든지 하는 특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방언은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투박한 부산말투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억세고 거칠게 들릴지 몰라도, 부산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정겹고 가깝게 느끼는 표현이 없을 것이다. 영어의 표준어는 무엇이 될 것인가? 사실, 영국영어가 원조이고, 미국영어는 1607년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영국을 떠나 신대륙을 향해간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본토와는 별개로 발달한 영어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영어는 상당한 기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바뀌어 간 반면 미국영어는 다소 영국과 떨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올 때의 발음을 일부 간직하면서 독자적으로 발달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주도 방언에 사용되던 아래아 발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과 같이 미국영어에서도 이민 간 당시의 엘리자베스 조의 영어발음인 [æ]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발음은 셰익스피어가 극작활동을 하던 그 당시의 발음이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남아있는 발음이라고 한다. 제주도의 젊은 세대들은 방송청취와 학교생활을 통해 표준말에 가까운 한국말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영어구사자들은 영국영어를 비해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비해 개척당

시의 상황이 끊임없이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해야 했고, 현재에도 미국인들의 직장 이동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머물면서 방언을 형성할 시간이 없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세계 1차대전과 2차대전을 치르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잡게 됨으로써 영국영어에 비해 국제적으로 위상이 올라가게 되었다. 특히, 개방된 교육 덕분에 세계의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한 뒤 귀국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식 영어가 영국영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영미어의 발음 비교

영미어는 문법적인 차이보다는 어휘와 발음부분의 방언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이 원고의 주제가 발음에 대한 부분이고 전문적인 비교분석보다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우(1992), 이맹성 외(1993), 전상범(1982) 등에 제시된 몇 가지 특징적인 발음차이의 일부를 이해하기 쉽게 서술해 보고자한다. 먼저, 영미어의 모음 발음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영어의 모음 [æ]가 영국영어에서는 [ɑ]로 발음된다. 예가 되는 단어들은 ask, chance, dance, path, laugh, class 등이 있다. 이들 발음들을 우리 말에 가깝게 표시해보면 영국식 발음은 “아스ㄱ”인데 반해 미국식 발음은 “애스ㄱ”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은 charm, barn, car과 같이 자음 “r”앞에서는 영미어 모두 [ɑ]로 발음된다. 또한 우리가 외래어로 표기할 때 “복싱”, “포켓”이라고 표시하던 영국식 발음 [ɒ]가 미국어에서는 “박싱”, “파킷”의 [ɑ]로 발음되는 단어들이 hot, box, pocket, top, rock 등이 있다. 영국영어에서 단모음 [i]로 발음되는 direct, dynasty, fidelity 와 같은 단어들이 미국영어에서는 모두 [ai]로 발음된다. 이와는 반대로 either, fragile, financial에서 영국영어의 [ai]가 미국영어에서는 [i]로 발음되는 단어들도 있다. 영국영어의 [ju:]가 미국영어에서는 [u:]로만 발음되는 경우는 new, duty, Tuesday 등의 단어가 있다. 가까운 우리말로 표기할 때 영국식 발음은 “뉴-스”가 미국영어에서는 “누-스”로 된다. 또한 미국영어의 모음은 콧소리가 섞여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비음화의 예로는 Dad [dæd]를 [dæd̩]라고 콧소리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달리 큰 코를 가진 신체구조에서 습관적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미국에는 매우 많은 종류의 알레르기체질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코가 막혀 고생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학생 가운데 정상적인 코를 가진데도 미국인의 발음을 그대로 내기위해 일부러 콧소리를 심하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콧소리는 멀리 전달되지 않기도 하고 듣기에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흉내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미어의 자음 발음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car, park, fork, there의 [r]이다. 영국영어에서는 “r”앞의 모음을 길게 하고 자음을 발음하지 않는데 비해 미국영어에서는 혀끝을 뒤쪽으로 구부려 발음을 한다. 그래서 “car”의 경우에 영국발음을 우리말로 표기해보면 “카-”에 가깝다면 미국영어에서는 “카-ㄹ”로 나타낼 수 있겠다. 또한 what, which, where, white 등에서 보이는 첫 자음 “h”의 발음이 영국영어에서는 없으나 미국영어에서는 what를 “왓”과 같이 발음한다. 덧붙여, 영국영어는 어떤 단어를 강조할 때 주로 자음을 강조하고, 미국영어는 모음을 강조한다고 한다. 그래서, 영국영어를 들으면 툭툭 튀기듯 자음의 발음들이 뚜렷한데 비해, 미국영어는 입안에서만 우물우물 거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런 예로, “rider”와 “writer”는 영국영어에서는 “d”와 “t”의 구별이 분명한 반면 미국영어에서는 두개의 발음이 같아서 문맥에서 구별해야한다. 또한 영국영어에는 일

부 강세를 받지 않는 단어에서는 약하게 발음하는 중모음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vacation을 미국영어에서는 [veiketʰən] 이라 발음하고 영국영어에서는 [vəketʰən]으로 한다. 이것은 미국영어의 철자발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chedule”을 미국영어에서는 잘 알고 있는 “school”에서 “sch”가 [sk]로 발음됨을 유추하여 [skɛʰdʒul]로 발음하고 영국영어에서는 [ʃɛʰdʒul]로 발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말로 미국영어 발음을 표기하면 “스케줄”이 영국영어에서는 “쉐줄”로 나타낼 수 있다. 같은 예로, vase를 base, case 등에서 유추하여 [veis]로, route를 round나 proud 등에서 유추하여 [raut]로 발음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단어 root 발음이 동일하여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달리 발음하게 된 경우일 수도 있다. 미국영어를 사용하던 개척자들은 나름대로 영국영어와 분리된 상태에서 일부 단어는 원래의 발음이 자주 사용되지 않게 되어 쉽게 알고 있는 단어에서 유추하여 발음하는 철자발음들로 대체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영어로 발음할 때는 앞서도 말했듯이, 자음과 모음을 모두 또렷하게 발음하는 것이 영미인 모두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분절음인 강세와 억양에서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영국영어에서는 주장세만을 가진 어휘들이 미국영어에서는 주장세와 부강세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Birmingham”이란 지명이 영국영어에서는 “버밍햄”으로 미국영어에서는 “버밍헴”으로 두개의 음절이 강하게 발음 된다 (이맹성 외 1993). 문장에서는 영국영어는 의문문의 서두에서 가장 높은 음으로 시작하고 각각의 이어지는 단어들을 또렷하게 발음하면서 음계가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단정하듯이 끝낸다. 이에 비해서 미국영어에서는 중간 음계에서 시작하여 중간의 단어들을 발음한 뒤 마지막 내용어를 갑자기 올려서 의문을 표시하는 방식을 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국영어의 문장 발음은 다양한 억양변화를 보이는 반면 미국영어의 문장 발음은 무미건조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표준어의 개념과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발음의 차이점에 대해 자음과 모음, 초분절음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영국영어와 미국영어는 발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차이는 방언적인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결국 표준영어로써의 영국영어의 위치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미국영어에 압도되어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영어의 발음을 자주 듣게 되고 교육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영어의 발음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음발음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주로 영국식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평소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여전히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에 치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과 대화할 때, 한국인으로서 가능하면 또박또박 발음하고, 다양한 국적의 원어민의 발음을 자주 들려주고 연습을 하여 국제화에 걸 맞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차이점에 대한 역사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볼 계획이다.

참고 문헌

- 박근우 역. 1992. 영어,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도서출판 성문.
 이맹성, 김영석, 박주현, 박영배, 강영세, 윤종렬, 김경학. 1993. 영어학의 이해.

서울: 지식산업사.

전상범. 1982. 영어음성학. 서울: 을유문화사.